# 佛母 조성 '미소 돌호랑이' 만나볼까

**무우수갤러리, 오채현 조각전**
**'태초의 녀석들' 9월 28일까지**
**'해피 타이거' 연작 등 선보여**


오채현 작가의 작품 '해피 타이거(Happy Tiger, 2023)'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모(佛母) 오채현 작가가 조성하는 석불은 일반적으로 도량에서 만날 수 있는 석불과는 그 결이 다르다. 어린이처럼 순수한 부처님, 힘든 이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부처님, 심지어는 유명 아이돌 멤버의 형상을 한 부처님도 존재한다. 항상 미소를 머금은 채로. 그런 오 작가가 '웃는 호랑이' 연작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를 연다.

서울 인사동 무우수갤러리는 오 작가의 조각전 '태초의 녀석들(KOREAN PRIMiTiViSM)'을 9월 9일부터 28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태초의 녀석들'의 첫 번째 이야기로, 오 작가의 호랑이 조각과 초기 석조 작품을 통해 우리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생명력과 자유로운 감각을 마주하는 자리다.

호랑이는 암각화에서 단군신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의 가장 오래된 기억 속에 등장해 왔다. 오랜 세월 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자 신성한 존재였으며, 때로는 해학적이고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상상 속에 함께해 왔다. 작가의 호랑이는 이같은 전통적인 호랑이의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거나 매끈하게 다듬는 대신, 돌이 가진 단단하고 거친 물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작가는 깎고, 긁고, 붙이고, 덧대는 손의 움직임을 통해 자유롭게 형상을 만들어간다. 두려움과 친근함, 신성함과 해학을 함께 품어온 한국의 호랑이는 작가의 손끝에서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원초적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시대에 오 작가는 오히려 불완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오래된 재료인 돌을 통해 과거의 형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감각으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매끈한 완성보다 만들어지는 과정의 힘을, 정제된 아름다움보다 손의 흔적을, 길들여진 형식보다 살아 있는 생명력을 보여준다. 돌이라는 단단한 물질에서 태어난 유쾌하고 엉뚱한 존재들은 우리가 잊고 있던 '길들여지지 않은 감각'을 다시 일깨운다.

전시장에 모인 호랑이들과 초기 조각들 역시 저마다 다른 표정과 몸짓으로 하나의 '호랑이 숲'을 이룬다. 무우수갤러리는 "장난스럽고 엉뚱하면서도 거칠고 생생한 이 존재들은 관람객에게 정제된 아름다움 너머의 살아 있는 생명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선사한다"면서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곁을 지켜온 호랑이가 이렇게 오 작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 '태초의 녀석들' 전시는 원초적인 생명력과 자유로운 감각을 마주하는 첫 번째 이야기"라고 전했다.

오 작가는 경북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마치고 이태리 까라라 국립미술아카데미 조소과를 졸업했다. 2020년 무각사 특별전, 2018년 월정사 '해피붓다전', 2017년 통도사 '붓다의 미소전' 등 30여 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 동아시아 고대 판목 '한자리에'

**고판화박물관 개관 23주년展**
**30년 수집 판목 대표작 전시**
**9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판화박물관 특별전에서 처음 공개되는 조선시대 범종 문양 거푸집.

동아시아 고대 판목 1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9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름다운 기록 유산-동아시아 고대 판목 특별전'을 개최한다. 박물관 개관 23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선학 관장이 지난 30여 년간 수집한 판목 3700여 점 중 대표적 판목 50여 점과 인출 작품 50여 점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동안의 전시를 통해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주목받았던 판목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유물이 조선시대 최고(最古) 고판화인 오륜행실도 판목을 일본식 화로 상자인 '이로리'로 만든 것으로, 이를 발굴·공개했을 당시 고판화박물관은 많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른 판목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최고 판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한글 소설 판목으로 만들어진 유충열전 분첩을 비롯해 심청전 등으로 만들어진 보석함도 전시된다.

새롭게 주목받을 판목들도 공개된다. 가장 주목되는 작품은 조선시대 범종의 문양을 찍었던 거푸집 역할을 한 판목이다. 판목의 앞면은 보살상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범종의 유두 부분과 범종을 장식하는 당초덩쿨문이 새겨져 있다, 이를 확인했던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은 "이 판목이 조선시대 범종의 문양 거푸집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한 있다.

이밖에도 대한제국 때 사용됐던 호적명부를 찍던 판목과 일본의 '춘일 대장경' 판목도 눈길을 끄는 전시 유물이다.

한 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에서 그동안 다양하게 열린 판목 특별전을 종합하는 전시"라며 "고판화의 특성들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확인하고 미래세대에 주요한 콘텐츠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033-761-7885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 문자반야

# 자기 규정에서 벗어나기

⑰ 불구부정(不垢不淨)

不 垢 不 淨

인간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문이 든다. 한편에서는 잔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타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이들이 있다. 이토록 상반된 모습이 모두 인간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가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간을 '죄인(원죄론)', '운명의 노예(숙명론)', '본래 선한 존재(성선설)', '본래 악한 존재(성악설)'와 같은 고정된 틀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불교는 인간을 어떤 고정불변의 본성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불교가 바라보는 인간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닌 '공성(空性)'이며,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성립한다는 '연기성(緣起性)'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의 바탕을 '불성(佛性)'이라 한다.

초기불교 경전 〈상윳따 니까야〉에서 설하는 연기법의 핵심, 곧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이치가 바로 인간 성품의 실상을 보여 준다. 인간은 처음부터 선하거나 악한 실체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를 대지에 비유해 보자. 텅 빈 대지에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장이 되고, 꽃을 심고 가꾸면 꽃밭이 된다. 쓰레기장과 꽃밭은 처음부터 주어진 이름이 아니다. 무엇이 더해지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인간의 성품도 이와 같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선과 악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조건과 선택이 만든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다.

내가 분노를 일으키면 그 순간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타인에게 미소를 건네면 미소 짓는 사람이 된다. 인간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의 생각과 행위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존재다.

〈반야심경〉의 '불구부정(不垢不淨)'은 바로 이 지점을 드러낸다. 우리의 참된 성품에는 본래부터 고정된 더러움(오염)도, 깨끗함(청정)도 없다. 맹자의 성선설이 인간에게 도덕적 선의 가능성이 본래 내재해 있다고 본다면, 불교의 불성은 선과 악 어느 한쪽으로도 고정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을 품는 대지와 같다.

공성의 지혜는 우리를 '자기 규정'이라는 감옥에서 풀어 준다. 과거의 업과 환경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를 빚어 간다.

근현대 선불교의 거장 만공 스님(1871~1946)이 말씀하신 '용무생사(用無生死)'의 경지도 이러한 주체적 삶의 극치이다. 이는 현실의 번뇌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친 현실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應無生死] 그 조건을 삶의 자원으로 삼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로 자신을 가두는 말라.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을 내려놓고 텅 빈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다.

〈화순 불암사 주지〉

# 역대급 템플스테이 이벤트 뜬다

**문화사업단, 11월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운영**

템플스테이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역대급 할인 이벤트가 뜬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2026년 하반기 여행가는 달 캠페인' 행사와 연계해 템플스테이 참가비 할인 이벤트로 운영한다. 해당 이벤트는 전국 104개 사찰에서 총 7800여 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11월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이벤트는 내수경제 진작 및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전환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원에 체험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광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10월 14일 오후 1시에는 서울·경기·인천·충청·세종권 지역 사찰 예약 오픈하며 10월 15일 오후 1시에는 강원·전라·경상·대구·부산 지역 사찰 예약 오픈한다.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 사찰 예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모든 할인 혜택은 선착순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智異山大華嚴寺

문 장 은산 종국
회 주 송천 종열
주 지 경천 우석

신도회 & 사부대중 일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전화 종무소 061)783-7600 기도접수처 061)782-0011 www.hwaeomsa.com

